

학종 · 로스쿨... 흙수저 올리는 음서제



박 성 희

- 前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시험은 가장 공정한 제도다. 기부금입학제 불허 등 어떤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본고사 덕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자식도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은 시험제도 덕분에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법고시에 합격, 법조인이 될 수 있었다. 법조인이란 신분을 바탕으로 정계나 재계에 진출한 사람도 부지기수다.

부모가 유치원 때부터 온갖 학원에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학생종합성적부(학종)용 특이 사항을 얻기 위해 별의별 과외를 받거나 온갖 대회에 나가지 않아도 됐다. 중고등학교 시절 가정형편상 혹은 방황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한 사람도 뒤늦게 철이 나서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다. 실제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46, 변호사)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막일을 하다 ‘공부해야지’ 마음 먹고 책상에 앉은 끝에 스톨다섯살(1996년) 때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고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됐다.

지금은? 사교육의 폐해를 줄이겠다며 즐기치게 바뀌은 대학입시제도는 마침내 서울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에서 본고사 대신 학종으로 신입생 대부분을 선발하게 만들었다. 우연히 알게 된 K대의 특별전형 합격생의 자기소개서는 기가 막혔다. 자소서엔 각종 대회 입상은 물론 ‘영어와 중국어책 다수 번역, 시집 출간, 단편영화 감독 및 제작’ 등 어마어마한 내용이 산더미처럼 기재돼 있었다.

내가 입학사정원이었으면 ‘이럴 수가’ 싶어 제쳐 놨을 법한데 그 학생은 당당히 합격했다. 고등학생이 책 출간과 영화 제작을 가능하게 하려면 부모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들여야 하는 걸까. 단순한 학교성적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선발한다는 ‘학종’ 중심제는 없는집 자식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끊고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장치로 변질되고 있다. 부모

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명 아래 복잡다단해진 입시제도는 이른바 금수저와 흙수저의 간극을 넓히고, 부모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흙수저들의 미래를 '일찌감치' 짓밟고 있다.

없는집 자식을 좌절시키는 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학 졸업장 없이도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검사·변호사가 될 수 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대학을 나온 뒤에도 1년에 2000만원 안팎씩 3년 동안 학비만 6000만원 가량 내고 로스쿨에 다녀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학종 중심 선발과 로스쿨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음서제란 고려시대 공신과 5품 이상 고위관료 자식들에게 특혜를 주던 제도다. 아버지나 할아버지 덕에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게 해준, 이른바 특채제도다.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관직이 5품 이상이면 아들과 손자까지, 3품 이상이면 수양아들·조카·동생까지 혜택을 줬다. 1인 1자가 원칙이었으나 실제로는 2명 이상도 누릴 수 있었다. 임금의 즉위나 태후·태자 책봉 등 특별한 때만 준다고 돼 있었지만 실은 정례화되다시피 했다. 이들에게 주는 관직(음직)은 처음엔 실무와 관계없는 한직이었지만 점차 요직으로 확대됐다.

로스쿨 지원용 자기소개서에 부모 혹은 조부모의 직업을 법조인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있었지만 학교마다 입학생 전형 방법이 다양하니 별을 줄 순 없다는 발표는 쓴웃음을 짓게 한다. 마음만 먹으면 부모와 조부모가 전화를 하거나 따로 모시고 대접하는 등 온갖 청탁방법이 있을 텐데 자소서에서 쓴 사람만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한들 소가 웃을 일이다.

영화 '쇼생크탈출'의 대사를 빌리지 않더라도 '희망은 좋은 것'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대학시절 내내 주머니에 차비조차 없었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잔뜩 바라고 기대했던 일이 번번이 나를 비껴갈 때도 내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여겼지 세상 탓이라거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성적이 부족했어도,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지 못했어도 혼자 삼수한 끝에 시험 쳐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했고, 그 덕에 사는 동안 많은 혜택을 누렸던 까닭이다.

시험은 가장 공정한 제도다. 청소년의 미래가, 청년층의 앞날이 자신의 노력을 가장 확실하게 대변하는 시험이 아닌 부모의 재력과 관심, 관리에 좌우되는 세상엔 희망이 없다. 젊은 세대에게서 희망을 빼앗는 세상은 서글프고 암담하다. 정부는 물론 대학과 법조계 인사 모두 이런저런 핑계로 현대판 음서제 확산에 앞장서지 말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시험으로 이땅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자. 본고사도 부활하고, 사법시험도 치르게 하자. 제발! 세상이, 사회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아야 당신들 자식이나 손자 자리도 보전될 수 있다

논객닷컴 인용